

걸프 국가의 아시아 중시 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강문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부연구위원
kangms@kiep.go.kr

유광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전문연구원
khryou@kiep.go.kr

이지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전문연구원
jnlee22@kiep.go.kr

김영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youngsun@kiep.go.kr

이다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연구원
dawnlee@kiep.go.kr



차 례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조사 및 분석 결과
3. 정책 제언

주요 내용

- ▶ [배경] 걸프 국가의 경제 다각화 필요성 증대, 지정학적 지형 변화, 아시아 국가의 높은 기술 수준 등의 요인들로 인해 아시아-걸프 간 경제협력력이 확대됨.
 - 걸프 국가는 화석 에너지에 대한 높은 의존도 감소 및 경제 다각화를 통한 왕정 통치의 정당성 확보, 걸프 지역 청년의 고용 창출, 탈탄소화 시대 대비, 첨단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 기술 수준 우위를 가진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수요가 높음.
 - 미국은 대중동 에너지 수요 감소와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커지면서 중동과의 협력이 감소했으나, 중국의 경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등의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중동과의 협력을 확대함.
- ▶ [시사점] 아시아-걸프 밀착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협력 네트워크 다각화, 기술 협력 확대, 분야별 가치사슬 형성, 선택과 집중, 그리고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을 이용한 걸프 진출 등임.
 - 걸프 국가와의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부 간 협의라고 할 수 있으며, 중국은 국유기업이, 일본은 종합상사가, 인도는 걸프 지역 내 인도 이민자 네트워크가 경제협력을 주도하고 있음.
 - 중국과 일본은 수직계열화 혹은 글로벌 가치사슬 형성 차원에서 걸프 국가와 활발히 협력하고 있음.
 -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이 UAE,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걸프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AI 중심 기업 및 스타트업 진출을 통해 현지 시장을 선점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 [정책 제언] 기존의 에너지 공급망 인프라 수주 협력 방식을 넘어 한-중동 간 중장기 협력관계 마련을 위해서는 협력 방식의 다각화가 요구되며, 에너지 분야에서는 석유화학 협력 대상국 다변화, 원전 협력 수요 증가에 맞춘 협력 확대, 수소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협력이,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시장 진출, R&D 협력, 스타트업 진출 지원 등이 요구됨.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중동-아시아 간 경제협력은 에너지 공급망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으나, 미국은 그 대외 전략 핵심 지역이 인도-태평양으로 바뀌었고, GCC 국가들을 중심으로 화석연료 기반 경제가 지식 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꾀하면서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이 확대됨.
 - 미국은 2011년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철군, 이란 및 예멘 후티의 사우디 유전 시설 공격에 대한 미온적 대응 등 중동지역에서의 군사적 개입은 감소
 - 미국이 셰일 가스를 바탕으로 세계 1위 원유 생산국이 되면서, 미국은 안보를, 중동은 원유를 상호 교환하는 카터 독트린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협의가 되었으며 2024년 페트로 달러 합의도 폐기됨.
 -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이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경제 다각화를 꾀하면서 중동 국부펀드의 대아시아 투자가 증가하였으며 한국, 중국, 일본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BRICS+에도 가입하는 등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이 눈에 띄게 증가함.
 - 아부다비 투자청(ADIA)이 2016년 홍콩에 사무소를 개설한 이래, 카타르 투자청(QIA)이 싱가포르에, 사우디아라비아 공공투자기금(PIF)이 홍콩에 지역사무소를 개설함.
 -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 외교관계 복원은 중국의 중재하에 이뤄졌으며, 2023년에는 한-GCC FTA가 체결됨.
-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걸프의 대아시아 협력 요인, 걸프와 아시아 측 수요에 관해 에너지 산업과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한국의 대걸프 국가 경제협력에 관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함.
 - 아시아-걸프 간 협력 고도화 및 협력 규모의 확대, 그리고 아시아 국가의 중동 지역 내 외교적 영향력 강화가 어떤 맥락에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중동 협력 전략을 재고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걸프의 아시아 중시 정책(혹은 균형 정책/기울기 정책)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가?
 - 걸프 주요국(사우디아라비아, UAE)의 아시아 주요국(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협력 전략에 차이가 있는가?
 - 우리나라의 대걸프 협력에 대한 함의는 무엇인가?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 4개국(한국, 중국, 일본, 인도)과 걸프 주요국(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을 중심으로 에너지, 첨단산업에 관해 분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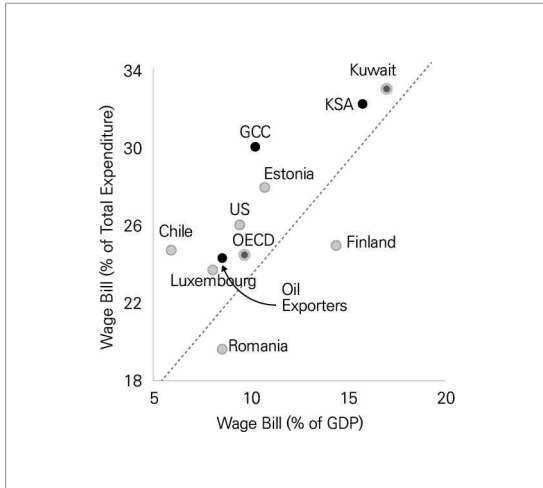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걸프 국가의 아시아 중시 정책’ 개념의 등장 배경

① 걸프 국가의 경제 다각화 필요성 증대

- [왕정의 통치 정당성 유지] 걸프 왕정은 사회계약의 불이행 발생 가능성 및 국가 시스템의 불안정 등 유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자 함.
 - 걸프 국가의 사회계약 구조상, 국가는 ① 교육, 의료 등 공공 서비스, ② 공공 부문 고용 기회, ③ 정부 계약 및 독점 라이선스를 통한 사업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화석 에너지 수출로 축적한 부를 국민에게 배분하고, 국민은 그 대가로 정권의 통치 정당성을 인정
- [인구 구조적 부담 해소] 걸프 국가는 젊은 세대의 공공 부문 일자리 수요가 높고 청년층 실업률이 높아 산업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강화
 - 걸프 국가 공공 부문 임금이 정부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청년층의 민간 부문 일자리 선호도는 낮아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높으며, 이에 따라 비석유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필요(그림 1 참고)

그림 1. 주요 지역 및 국가의 공공 부문 임금 지출 비교



자료: World Bank Blog(2021. 8. 25.), "Tackling the public sector wage bill in the GCC,"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7. 20.).

표 1. 걸프 주요국 중장기 발전계획 주요 내용

국가	경제계획 (발표 연도)	중점 육성 산업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 비전 2030 (2016)	관광, 방산, 재생에너지, 조선, 엔터테인먼트
UAE	센테니얼 2071 (2017)	첨단기술, 우주 과학, 공학, 보건
카타르	카타르 국가비전 2030 (2008)	첨단 제조업, 에너지, 금융, 물류, ICT
쿠웨이트	쿠웨이트 비전 2035 (2017)	물류, 석유화학, 관광, 보건의료, ICT
오만	오만 비전 2040 (2018)	제조업, 물류, 관광, 어업, 광업
바레인	경제비전 2030 (2008)	금융, 관광, 서비스, 제조업, 물류

자료: 이권형 외(2020), pp. 59-60를 수정; Saudi Arabia Ministry of Economy and Planning(2007), "Saudi Arabia: Long-Term Strategy 2025," pp. 38-43; United Arab Emirates Ministry of Cabinet Affairs(2023), "We the UAE 2031: Towards New Peaks," pp. 26-31; Deloitte(2013), "Oman 20/20 Vision," p. 18; "Wrapping up Vision 2020, solidifying Vision 2040"(2019. 3. 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4. 7. 22.).

- [탈탄소화 시대 대비]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채택으로 2000년대 들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되었으며, 그린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산업 다각화를 위한 걸프 국가의 생존 전략으로서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발표됨(표 1 참고).
- [산업 발전 파트너로서의 아시아] 걸프 국가들은 (첨단) 제조, ICT, 금융, 물류, 관광 등의 산업을 국가 발전계획의 중점 산업으로 지정했으며,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 수준이 높은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시도
 - 지난 10년간, 세계 기술기업 매출 증가의 52%, 세계 스타트업 투자 증가의 43%, 세계 R&D 지출 증가의 51%, 세계 특허 출원 증가의 87%를 아시아가 담당
 - 특히 아시아 국가(한국, 중국, 일본, 인도)들은 국방, 우주, 에너지, AI, 로봇 공학 등 주요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혁신적 연구를 주도하고 있음.¹⁾

② 지정학적 지형 변화

- [미국의 중동 개입 축소와 중국·러시아의 부상] 미국은 중동 내 군사 개입에 대한 피로감 증가, 대중동 에너지 의존도 하락,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심화 등의 이유로 대중동 개입을 축소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중동 내 영향력은 오히려 증가
 -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동의 지정학적 가치를 인식한 중국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보장 및 일대일로 구상의 달성을 목표로 역내 국가들에 대한 내정 불간섭 원칙을 표방하며 영향력을 확대
 - 러시아는 우방인 시리아 바샤르 알아사드(Bashar al-Assad) 정권의 붕괴를 정치·군사적 지원을 통해 끝까지 저지함으로써, 역내 권위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미국과는 다른 ‘신뢰할 수 있는 강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함.
- [미·중 전략경쟁 속 새로운 협력 파트너 모색 필요성]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대중국 협력은 에너지 무역과 일대일로 관련 인프라 프로젝트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인프라, 첨단기술, AI, 신재생에너지 등 전략적 산업으로까지 확장
 - 에너지 교역을 통해 중국과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이어온 걸프 국가들은 미중경쟁의 영향에 더욱 크게 노출되었음.
 - 미국은 이러한 걸프와 중국의 밀착을 직접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UAE에 대한 230억 달러 규모 F-35 미국산 전투기 판매 계약을 중단하거나, UAE의 AI 기업 G42가 미국의 압력으로 2024년 2월 중국 기업 관련 지분을 전부 처분한 사례가 있음.

1) Leung, Robin, and Cave(2024), pp. 20-38.

2) 아시아-걸프 경제협력 특징

① 에너지

- 아시아 국가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징은 높은 대걸프 원유 수입 의존도, 인프라 건설 사업 추진, 그리고 수소 공급망 구축 시도라고 볼 수 있음.
 - 아시아 국가는 대걸프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으며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의존도가 증가함(표 2 참고).
 - 아시아 주요국과 비교해서 한국의 대걸프 원자력 부문 진출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높으며 중국과 일본은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NRC(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EUR (European Utility Requirements) 등의 국제 인증을 받지 못해 대걸프 원전 협력에 있어 한국은 비교우위가 있음.

표 2. 에너지 분야 아시아-걸프 협력 특징

구분	한국	중국	일본	인도
원유	·자국 원유 도입의 70% 이상 중동 산유국에 의존 ·러-우 전쟁 발발 이후 의존도 심화 ·역내 인프라 건설 사업 이행 ·공동 원유비축 사업 추진	·자국 원유 도입의 50% 이상 중동 산유국에 의존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산 원유 수입 확대 ·역내 인프라 건설 사업 이행	·자국 원유 도입의 90% 이상 중동 산유국에 의존 ·러-우 전쟁 발발 이후 의존도 심화 ·역내 인프라 건설 사업 이행 ·공동 원유비축 사업 추진	·자국 원유 도입의 40% 이상 중동 산유국에 의존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산 원유 수입 확대
정유 및 석유화학	·역내 인프라 건설 사업 이행 ·직간접 투자 유치 ·사우디 위주 협력	·역내 인프라 건설 사업 이행 ·양방향 투자 추진 ·사우디 위주 협력	·역내 인프라 건설 사업 이행 ·합작투자사 설립 및 운영 ·간접 투자 유치	·역내 인프라 건설 사업 이행 ·양방향 투자 추진 ·UAE 위주 협력
재생 에너지	·EPC 위주의 역내 인프라 건설 사업 이행	·역내 인프라 건설 사업 이행 ·건설 프로젝트 및 자국 기자재 조달 연계 ·태양광 패널 등 중간재 수출	·역내 인프라 건설 사업 이행	·역내 인프라 건설 사업 이행 ·소다자협업체 활용
수소	·공급망 강화, 공동 기술개발 등 합의 ·역내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추진	·공급망 강화, 공동 기술개발 등 합의	·공급망 강화, 공동 기술개발 등 합의 ·역내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추진 ·블루 암모니아 운송 시범사업 이행	·공급망 강화, 공동 기술개발 등 합의 ·역내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추진
원자력 에너지	·UAE 내 원전 인프라 건설 사업 이행 ·SMR 공동 기술개발 추진 ·사우디 원전 건설 입찰 참여	·협력 강화 합의 ·사우디 원전 건설 입찰 참여	·협력 강화 합의	·협력 강화 합의

자료: 저자 작성.

- 정유 및 석유화학 부문에서는 특히 한국과 중국이 걸프와 활발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대걸프 협력 방식도 역내 인프라 건설, 투자 유치 등 전반적으로 비슷한 모습을 보임.
- 중국은 글로벌 태양광 발전 제조 공급망의 전 단계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해 가격경쟁력에서 우위가 있으며, 이에 걸프 각국에서 진행 중인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서 중심 역할 수행
 - 재생에너지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의 걸프 진출이 비교적 미미하며 대부분 역내 태양광 인프라 시설을 EPC 형태로 건설하는데 머물.
 - 인도도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협력 증진을 위해 소다자협의체를 활용하기도 함.

② 첨단산업

- 아시아 국가 중에서 대걸프 협력 수요가 가장 큰 국가는 중국과 인도임(표 3 참고).
 - 중국은 첨단산업 전반에 걸쳐 정부가 협력을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기업의 걸프 지역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중국-걸프협력회의(GCC) 정상회의와 분야별 대화 채널을 구축하였으며, 미·중 간 기술경쟁이 심화하면서 협력 채널 다변화를 위해 대걸프 협력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음.
 - 인도는 첨단산업 기술이 고도화된 한국, 중국, 일본과 달리 첨단산업에서 활용되는 중·고 기술이 비교적 발달되어 있고 영어가 가능한 인재풀이 넓기 때문에 걸프 지역 진출에 유리함.
- 주요 협력 분야에서는 아시아 4개국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중국은 디지털 경제 및 산업, 모빌리티, 항공우주, AI, 5G/6G 등 사실상 첨단산업 및 기술 전 분야에 걸쳐 걸프 국가와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며, 중국기업과 걸프 기업 간 합작 투자 사례도 늘어나고 있음.
 - 한국은 디지털 산업, 모빌리티 측면에서 협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우주 산업 공동 협력과 로봇 산업 육성 협력을 진행 중
 - 인도 역시 항공우주, AI, 소형로봇,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첨단산업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음.
 -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인도 등과 비교했을 때 기술적 우위를 가진 분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협력에 가장 소극적임.
 - 아시아 4개국이 걸프 국가와 협력하는 주요 채널은 공통적으로 정부 간 대화와 파트너십 구축이며, 그중에서도 중국은 걸프 6개국과 정상회의 및 장관급 회의 개최, 모빌리티 분야를 중심으로 걸프 국가 내 합작법인을 설립 등, 가장 적극적임.

표 3. 에너지 분야 아시아-걸프 협력 특징

구분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협력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걸프 지역 시장 진출 · 공공 부문에서 한국 기술 모델 수출 · 석유화학 산업에 첨단기술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5G 등 관련 중국기업의 걸프 지역 진출 확대 · 중국기업의 걸프 투자 유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주 산업 협력 강화, 걸프의 대일본 첨단산업 투자 확대, 일본 스타트업의 걸프 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적 인접성을 활용한 인도-걸프 협력 강화 · 걸프 투자 유치를 통한 스타트업의 걸프 진출
주요 협력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 디지털 전환, 바이오, 항공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디지털 산업 및 경제, 전기차, 우주 산업, 5G/6G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우주, 로봇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우주, AI, 소형 로봇, 디지털 전환
협력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간 대화 및 파트너십 체결 · 정부 간 협력 파트너십 체결 시 민간 기업이 경제사절단으로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장관급 대화를 통한 중국+6 회의 개최 · 민영기업 진출 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기업이 참여하는 이니셔티브 구축 · 정부 간 채널 및 파트너십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타트업 인디아, 인베스트 인디아 등의 플랫폼 활용
주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기업 간 협력 위주, 협회의 정보 제공 · 걸프 지역이 우리 기업에 대한 관심 표명 후 협력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중 경쟁에 따른 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걸프와 협력 · 걸프로부터 중국기업의 투자 유치 확대 · 기술 협력 및 인재 양성 협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간 협의와 종합상사 주도의 민간 협력 등 두 트랙 진행 · 소프트뱅크 등의 공동투자 협력 · 교육, 기술 지원 등 중장기 협력 · 학술 협력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인도 네트워크 활용 ·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한 인적자원 진출 · 최첨단기술보다는 중고 기술 위주 협력

자료: 저자 작성.

3. 정책 제언

1) 아시아-걸프 밀착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 [협력 네트워크링 주체] 정부 이외에도 민간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링과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함.
 - 걸프 국가와의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부 간 협의라고 할 수 있으며, 중국은 국유기업이, 일본은 종합상사가, 인도는 걸프 지역 내 인도 이민자 네트워크를 통해 경제협력을 주도하고 있음.
 - 일본은 JETRO, JICA 등 정부 산하기관의 지사가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JETRO의 사례를 보면,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지사를 통해 일본기업의 걸프 지역 진출을 지원하고 있음.
 - 기업 및 스타트업 진출을 확대하고 한국의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협회가 걸프 국가에 진출해서 현지 네트워크 구축과 기업 매칭을 지원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기술 협력 확대] 기술교육 및 훈련을 통한 엔지니어, 법률 및 회계사, 분야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며, 국내 전문인력 현지 파견 시 이에 상응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은 JICA, JETRO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현지 기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은 첨단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걸프 지역 고등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최근 들어 중국은 사우디 킹 압둘라 과학기술대(KAUST)와 지식 및 기술 공유를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일본은 JICA를 통해 쿠웨이트, 오만 등과 기술협력 진행
- [선택과 집중] 중국, 일본, 인도 등 다른 국가보다 걸프 지역에서의 경제협력 규모가 작다는 점을 인식하고 걸프 지역 내 거점 국가 진출을 노리는 방식으로 집중화 시도
 - 바라카 원전의 성공적인 건설에 힘입어, 한국과의 원전 협력을 희망하는 걸프 국가가 늘어나고 있으며, 에너지 분야에서는 석유화학 분야가,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모빌리티, 디지털 전환 및 기술 등에서 비교우위가 있어, 걸프 지역 기관 및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보임.
 - 최근에는 AI 육성 기조에 따라 AI 반도체 제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기업과의 협력을 희망하는 등,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음.
- [분야별 가치사슬 형성] 중국과 일본은 현지 기업과의 조인트벤처 설립 및 지분 투자를 통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수직계열화 시도가 이뤄짐.
 - 중국이 참여한 여러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는 중국기업이 계약 및 EPC를 담당하고 중국 태양광 기업이 제품을 공급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 일본은 종합상사 위주로 글로벌 가치사슬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걸프 지역은 종합상사의 가치사슬 구조에서 특정 부문을 담당하고 있음.
-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 이용]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이 UAE,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걸프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AI 중심 기업 및 스타트업 진출을 통한 현지 시장의 선점 필요성이 커짐.
 - 중국기업의 걸프 협력에 대해 미국 백악관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오히려 인텔, 아마존 등 미국 기업이 UAE에 투자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AE는 G42 등을 필두로 협력대상을 미국으로 선회
 - 중국의 대걸프 첨단 분야 협력 확대에 있어, 미국의 대중국 견제 및 걸프 국가에 대한 압박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중장기적인 협력 안정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도 있음.

2) 정책 제안

- [협력 방식] 기존의 에너지 공급망 인프라 수주 협력 방식을 넘어 한-중동 간 중장기 협력관계 마련을 위한 협력 방식 다각화가 요구됨.
 - [다자협력] 한·중·일의 걸프 지역 공동 협력 및 진출 방안 모색을 통해 글로벌 공동 이슈(기후 변화 대응, 식량안보, 탄소 배출 감축 등)와 관련한 협력을 먼저 시작함으로써 중장기 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
 - 걸프 국가의 대표적인 삼각협력 사례는 UAE·인도·프랑스 간 에너지, 기후변화, 기술 및 방산 분야 삼각협력이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튀르키예·파키스탄이 삼각협력을 통한 방산 분야 협력에 합의,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 3자가 사우디·이란 간 외교관계 복원을 위해 삼자간 회의 개최 등의 사례도 최근 들어 나타남.
 -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이 정상회의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경제협력 및 무역, 공공 보건 및 노령화, 과학기술 협력, 디지털 전환, 재난 경감 및 안전 등과 같은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와 함께 3개국+X 협력 구상을 통해 한·중·일이 제3의 국가와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현지 네트워크 강화] 한국의 대걸프 협력을 중장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민간 주체 필요
 - 플랜트산업협회, 건설협회 등 건설 및 인프라 수주와 관련한 협회, 코트라 사무소 등을 통해 걸프 지역에 진출한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산업별 협회의 적극적인 현지 기업 네트워크 구축 및 이를 위한 인적 및 물적 지원 필요
 - 본 연구에서는 산업별 교육 및 훈련 사업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 구축, 현지 파트너를 소개하고 한국기업이 현지에서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산업별 협회가 하도록 조정, 우리 기업의 현지 수출 및 투자 지원 활동 등을 제안함.
 - [공동연구 및 인력 양성 관련 협력 강화] 산업별 연구 플랫폼별로 정례 학술 심포지엄 개최, 걸프-한국 간 공동연구 활성화, 걸프와 한국 대학·기업 내 다양한 층위와의 인력을 교류하기 위해 복수 학위과정, 기업 인턴십 채용, 숙련 노동자 파견의 3개 프로그램 추진 등을 고려
 - 산업별 연구 플랫폼을 활용해 양측의 산업별 R&D 및 투자 수요를 통합적으로 수집하고 연구 주체에 따라 사업과 연구 주체를 연계함으로써 공동연구 추진에 있어서의 일관성 결여 문제를 해소
 - 공동연구 및 인력 양성을 통해 걸프 국가의 산업별 수요를 통합적으로 파악하여 국내 대학, 연구소, 기업과의 효율적인 매칭, 정부의 대중동 협력 정책 구상에 기여, 그리고 민간 교류를 활성화를 통한 산업간 네트워크가 형성
 - [특별경제구역 진출] 걸프 지역 6개국에는 70여 개의 특별경제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UAE에만 47개가 분포되어 있는데 세제 혜택,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 및 소득세,

달러 페그제 운용에 따른 안정적 환율 등이 우리 기업의 걸프 지역 진출에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제벨 알리 자유구역(JAFZA)인데 JAFZA에는 9,0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2021년에만 4,540억 달러 규모의 수출을 한 것으로 파악되며 인도-중동-유럽 회랑(IMEC)의 주요 지역 중 하나이기도 함.

- [민간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기업 매칭] 산업별 유망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과 걸프 지역 내 기업을 매칭하는 작업을 통해 합작 투자 혹은 공동 협력 등의 형태로 기업 간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함.

- 중국은 UAE 마스다르 시티에 민간 이니셔티브인 실리콘 하버(Silicon Harbour)를 중심으로 중국 스타트업의 UAE 진출을 지원하고 있음.

● [분야별 협력] 에너지 분야에서는 석유화학 협력 대상국 다변화, 원전 협력 수요 증가에 맞춘 협력 확대, 수소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협력을 제안하며,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플랫폼 서비스 구축, R&D 협력, 스타트업 진출 지원 등에 관한 정책을 제안함.

- [에너지] 에너지 분야에서는 기존의 에너지 플랜트 수주 방식의 협력을 넘어, O&M 수주, 석유화학 산업 협력 다각화, 원전 협력 강화 등이 필요함.

- 에너지 분야에서 걸프 국가의 두드러진 특징은 EPC 형태의 플랜트 수주뿐만 아니라 O&M 협력까지 고려한다는 점이며,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플랜트 수주 방식 다변화가 요구됨.
- 한-UAE 간 석유화학 산업 협력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에 편중된 석유화학 산업의 대걸프 국가 협력 다변화 전략이 요구됨.
- 최근 걸프 지역 내 증가하는 원자력 발전 수요에 부응하여, 한국의 원전 수출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자력 아랍코 등을 통해 원전 건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점에 주목할 필요
- 한-걸프 간 수소 협력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수소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오만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수소 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주목해야 할 분야는, 그린 암모니아 공급망 구축, 수소차 공급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수소 에너지의 활용 범위 확대 등 수요 기반 구축과 관련한 분야라고 할 수 있음.

- [첨단산업] 첨단산업 및 기술과 관련하여 한-걸프가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서비스 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됨.

- 걸프 지역 내 스마트 시티 건설 움직임에 따라 IoT 등과 같은 스마트 시티 내 디지털 인프라 도입에 협력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임.
- 걸프 지역에서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분야는 첨단 모빌리티 분야와 디지털 서비스 분야이며, 특히 모빌리티 플랫폼 구축을 통한 서비스 공급이 유망함.

- 정부 서비스 디지털화를 통한 정보 통합 및 서비스 추진을 위한 민간 기업 활용방안에 관한 협력도 한-걸프 간 협력 분야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임.
- 인공위성 정보 활용 고도화, 드론 및 자율주행차 R&D 확대 등과 같은 첨단산업 분야 연구협력도 중요하며, MBZAIU의 AI 학술 협력 등 AI 분야 연구 협력이 활발한 점을 고려해서 연구협력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기술 협력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은 스타트업 간 협업 촉진과 기술 교육인데, UAE가 마스다르 시티를 중심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통해 스타트업을 유치하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 스타트업의 걸프 지역 진출을 위해 현지에 대한 정보 부족, 현지 진출을 위한 자금력 부족, 현지 파트너 혹은 네트워크 부재 등의 문제 해결이 요구됨. **KIEP**



참고문헌

- 강문수, 유광호, 이지은, 김영선, 이다운. 2024. 『걸프 국가의 아시아 중시 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24-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권형, 손성현, 장윤희, 유광호. 2020. 『저유가시기 GCC 주요국의 경제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20-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Deloitte. 2013. “Oman 20/20 Vision. A Middle East Point of View.” (Fall)
- Leung, Jennifer W., Stephan Robin, and Danielle Cave. 2024. “ASPI’s two-decade Critical Technology Tracker: The rewards of long-term research investment.” The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
- Saudi Arabia Ministry of Economy and Planning. 2007. “Saudi Arabia: Long-Term Strategy 2025.”
- United Arab Emirates Ministry of Cabinet Affairs. 2023. “We the UAE 2031: Towards New Peaks.”
- World Bank Blog. 2021. “Tackling the public sector wage bill in the GCC.” (August 25). <https://blogs.worldbank.org/en/governance/tackling-public-sector-wage-bill-gcc> (검색일: 2024. 7. 20.).
- Wrapping up Vision 2020, solidifying Vision 2040.” 2019. *The Business Year*. (March 2). <https://thebusinessyear.com/article/wrapping-up-vision-2020-solidifying-vision-2040/?srsltid=AfmBOor5A3gN3I2rTzyXPv84cVNbUHsUWpjaVqK88EPM23h-HtM2O9UD>(검색일: 2024. 7. 22.).